

자아 관련 변인들과 학교적응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go-Related Variables and
School Adjust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김세영(Se Young Kim)¹⁾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lf-concept, self-efficacy, self-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582 fifth and sixth grad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were all confirmed as variables that had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se, it was found that school adjustment and self-resiliency turned out to have a more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Second, as for the greatness of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which mediates the ego-related variables and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self-concept proved to be greater in that order. Third, self-concept turned out to be the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compose an intervention method for the promotion of life satisfaction case by case for short term goals.

Keywords : 자아개념(self concept),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신경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아동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 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Shingyeong University,
400 Namyang-ro, Hwaseong-si, Kyeonggi-do 445-741, Korea
E-mail : childwelfare30@hanmail.net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왕따, 게임중독, 우울, 불안 등의 부적응 문제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행복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수준일까? 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2013)에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행복과 생활만족도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생활 전반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인 생활만족도(Baek, 2004; Cha, 2001)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인 동시에, 정신건강과 학업성취, 가출충동이나 자살충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유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Chun & Lee, 2006; Lew, 2013; Son, 2005),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자녀 관계 및 또래관계의 질과 갈등양상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 Lee, & Lim, 2013). 또한 일상생활과 관련해 학

교생활에 적응적이며(An et al., 2013)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Lim, 2010)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개인 내적 기제인 자아개념(Terry & Huebner, 1995), 자기효능감(Kim & Yi, 2011),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J. Kim, 2012; Kim & Lim, 2013)의 자아 관련 변인들이 긍정적이거나 높은 수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아 관련 변인들은 생활만족도와 관련해 많은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자아 관련 변인이란 일반적으로 ‘자아(ego)’와 ‘자기(self)’를 접두어로 사용하는 개념들을 말하는데(Lee & Koh, 2003), 주로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의해 그 사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아(ego)는 외적 요구에 맞추어 내적 요구를 조정하는 기능들의 집단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강도(ego-strength) 등과 같이 기능과 관련되어 행위주의나 능동적인 면으로 설명된다. 이와 비교해 자기(self)는 인식된 자기 자신, 전체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상(self-image), 자아정체감(self-identity),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지각(self-perception),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같이 대상화되어 인식된 측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Lee & Koh, 2003; Park, 2004).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자아 관련 변인 중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역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개념은 자아가 스스로에 대해 갖는 생각, 느낌 등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해 지각된 모든 견해(Jo & Lee, 2010; Song & Lee, 2005)로 정의되며,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기능적 유연성(Brooks, 2006; Brooks

& Goldstein, 2001),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우호적 정서적 태도(J. Kim, 2012)로 정의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Bandura, 1997; Farber, 2000; Marshall, 1991)으로 정의된다. 정리하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지각과 신념이라는 인지적 요소, 자아탄력성은 기능적 요소,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요소와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간에는 자아의 발달 과정과 맞물려, 선행되는 요인 및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Won, 2013; Yoo, Eurm, & Park, 201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아 관련 변인들을 다루는 연구는 각각의 개념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은 물론 변인 간 관계양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도 충분히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와 자아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Jang & Ahn, 2013; J. Kim, 2012; Kim & Yi, 2011), 명확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자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경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자아 관련 변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계경로를 보다 종합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자아 관련 변인 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학교적응이다(An et al., 2013; Lew, 2013). 학교는 아동이 지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유능

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또래 및 부모 이외의 어른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발달을 포함한 전인적 발달을 이루어가는 장소이다(An et al., 2013; Pastore, Perkins, Santinello, & Vieno, 2007). 이렇게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교에 대한 적응 수준은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도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 Lim, 2013). 그중에서도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는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 2013; Moon, 2005).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역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 내적 특성인 자아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자아개념(Jang & Ahn, 2013; Lee & Lee, 2008; Lee & Lee, 2009)과 자기효능감(Kim, Han, & Cho, 2013; Kim, Jung, & Lee, 2003; Kim & Yi, 2011) 및 자아탄력성(Kwak & Seo, 2011; Lee, 2011; Lim, 2010; Song & Kim, 2011)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적이라는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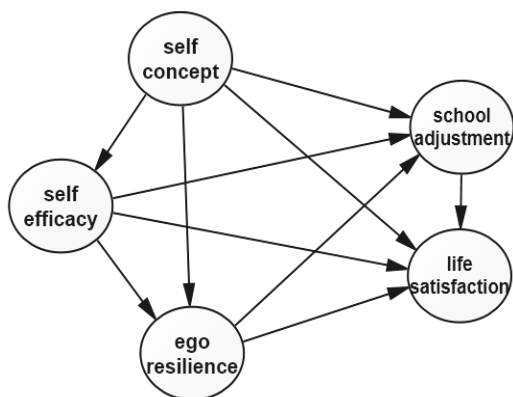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자아 관련 변인과 학교적응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학교적응 역시 자아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으며, 변인 간 유기적 관계 및 상대적 중요도와 경로를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 관련 변인들인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이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경로를 모형화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학교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 관련 개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여,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및 또래관계의 비중이 높아지며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이전의 보다 예방적, 보편적 개입 전략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교육, 심리, 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향하는 바가 예방적 차원의 보편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경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자아개념은 생활만족도(Terry & Huebner, 1995)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Lee & Lee, 2009)과 자아탄력성(Lee & Won, 2013), 그리고 학교적응(Jang & Ahn, 2013)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자아 발달단계를 근거로 한다. 발달심리학에서의 자아 발달과정을 정리해보면, 생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심리기능의 미분화 상태에서 자아가 확립되기 시작하며, 이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언어능력의 발달과 함께 사고과정도 크게 발달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지적 인식을 통한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본다(Noh & Kang, 2003). 그리고 다음 6년에서 8년까지 사회적 집단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개념을 확립해 가며, 학령기 이후 타인과 협동적이며, 경쟁적인 활동 가운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자기효능감을 보다 명확히 형성하게 된다(Noh & Kang, 2003; Song, 1997). 이후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자아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자율적인 활동을 선택하고, 욕구와 충동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Wigfield, Eccles, MacIver, Reuman, & Midgley, 1991). 물론 자아의 발달은 특정한 발달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인식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맞물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S. Kim, 2012).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라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되는 자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Lee & Lee, 2009)과 자아탄력성(Lee & Won, 2013; Yoon & Lee, 2009)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확립되어 자아 발달의 근간이 되는 자아개념이, 이후에 보다 견고해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의 기능적 차원에 해당하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Kim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 Yi, 2011)에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Yoo et al., 2011) 및 학교적응(Kim et al., 2013)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해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대처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해 Martin과 Marsh(2006)는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부정적인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artin과 Marsh(2008)는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자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경로를 설정하였다.

셋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생활만족도(Kim & Lim, 2013)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학교적응(Song & Kim, 2011)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자아개념 또는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는 변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Lim & Yoon, 2013), 많은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자기조절적인 기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으며(Bandura, 1997; Maddux, 1995; Sung & Lee, 2008),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Lee & Lee, 2009; Lee & Won, 2013; Yoon & Lee, 2009)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토대로 자아탄력성이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 및 학교라는 사회에 대한 적응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An et al., 2013; Kim & Lim, 2013; Lew, 2013) 아동의 학교적응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경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아동의 자아 관련 변인들 및 학교적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과 함께,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 관련 변인들과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 관련 변인들과 학교적응은 생활만족도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아 관련 변인들의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C초등학교와 Y초등학교 5, 6학년 58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한 56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의 지역, 학년,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322명(57.1%), 경기 242명(42.9%), 5학년 296명(52.5명%), 6학년 268명(47.5%), 남

아 298명(52.8%), 여아 266명(47.2%)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도구

1) 자아개념

이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 등을 포함해 자신에 대해 지각된 모든 견해(Jo & Lee, 2010; Song & Lee, 2005)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Lee와 Koh(2006)의 ‘초등학생용 자아개념검사’ 중 일반자아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은 8~40점 사이의 분포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Bandura, 1997; Farber, 2000; Marshall, 1991)으로 정의되며, Kim(2002)이 개발한 ‘학업동기검사’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총 26문항으로,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총점은 26~130점 사이에 분포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에서 윤통

성 있게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기능적 유연성(Brooks, 2006; Brooks & Goldstein, 2001)으로, Hwang 외(2010)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한국아동성격검사’의 자아탄력성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9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19~95점까지의 점수 분포가 가능하다. ‘기분이 나쁠 때가 별로 없다’, ‘나는 늘 기분이 좋고 활발하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적응잠재력을 나타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Cronbach's α 는 .89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4)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에서의 적응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Lee(2001)와 Cho(199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Kim(2002)이 수정, 보완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의 4개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측정한 문항 내적 일치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5)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 즉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지각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aek, 2004; Cha, 2001), Huebner(1994)의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를 Lee와 Lee(2005)가 우리나라 아동의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한 아동용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만족도, 학교만족도, 가족만족도, 자아만족도, 환경만족도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지각이나 평가 등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주거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환경만족도를 제외한 4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친구만족도 8문항, 학교만족도 8문항, 가족만족도 7문항, 자아만족도 5문항, 총 28 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은 28~140점의 분포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연구절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에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의 C초등학교와 경기 지역의 Y초등학교에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 실시에 앞서 연구자가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학급에 들어가 아동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방법,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바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단일차원성 변수인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에 대해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낮추고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으며(Bandalos, 2002; Seo, 2010),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행렬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와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 확인과 구조회귀모형 추정의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절차(bootstrapping)를 통해 확인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기초통계 및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관계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탐색에 앞서 변인 간 인과관계의 검증 가능성 및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통한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을 실시하고 변인 간 상호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은 평균 3.73($SD = .87$), 자기효능감은 3.43($SD = .76$), 자아탄력성은 3.83($SD = .85$), 학교적응은 3.43($SD = .71$) 생활만족도는 3.43($SD = .7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측정모형 하의 지표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들의 단변인별 왜도는 -.01에서 -.82, 첨도는 -.05에서 -.86으로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결과(Table 1 참조) 모든 변인들 간에는 .46에서 .77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 and basic statistics

(N = 564)

	Self concept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Self efficacy	.50**				
Ego resilience	.61**	.46**			
School adjustment	.69**	.65**	.65**		
Life satisfaction	.62**	.53**	.67**	.77**	
M(SD)	3.73(.87)	3.43(.76)	3.83(.85)	3.43(.71)	3.43(.73)
Skewness	-.23	-.12	-.48	-.21	-.82
Kurtosis	-.45	-.16	-.58	-.72	.31

** $p < .01$.

음이 검증되었다($p < .01$).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우도추정방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고 변인들 간 관계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2. 구조방정식모형 탐색

1) 측정모형의 검증

Kline(2011)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를 탐색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수렴-변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2 참조),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RMSEA .10 이하, CFI .90 이상, TLI .90 이상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2000). 다음으로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8 이상으로($p < .001$) 높게 나타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켰다(Moon, 2009). 즉, 지표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변별타당도에 있어서도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53에서 .80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상관계수 .85 이하로 잠재변인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변별타당도의 증거로 적합하다(Moon, 2009). 이렇게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연구모형을 통한 변인 간 인과적 관계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2) 구조회귀모형의 검증

다음으로 통계적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우선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를 비롯한 적합도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경로별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개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경로,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결과모형의 변인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아개념으로부터 28%, 자아탄력성은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으로부터 55%, 학교적응은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으로부터 75%, 생활만족도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으로부터 총 72%의 설명력을 가지

〈Table 2〉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and model fit (N =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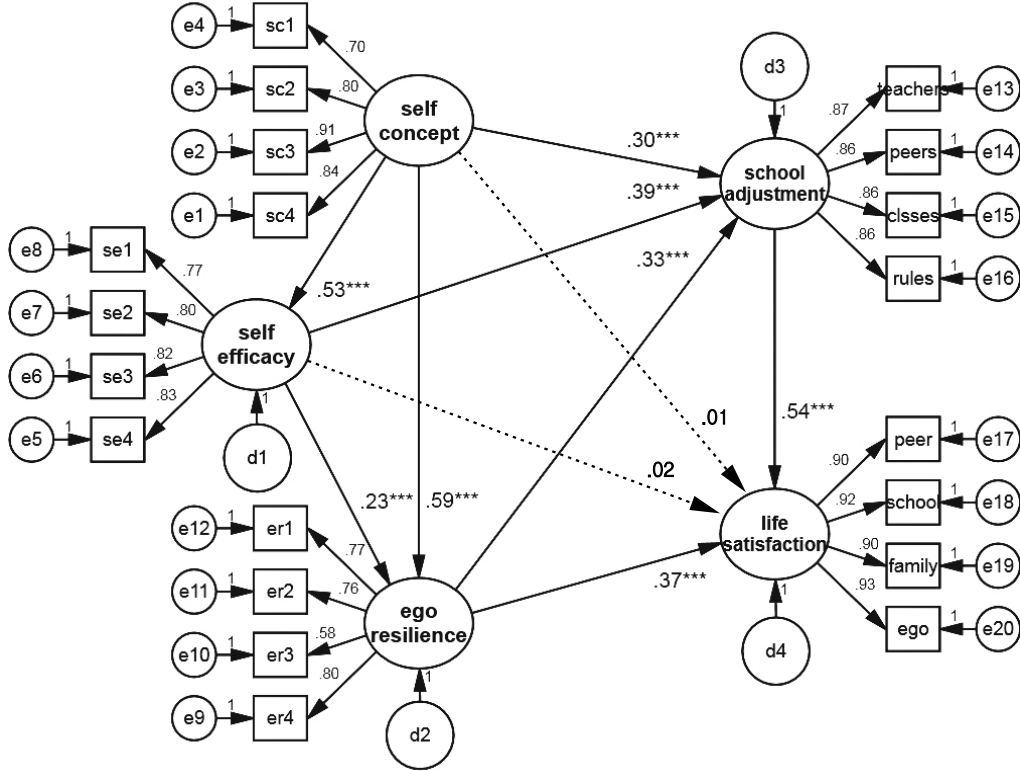
	Parameter	Standardized estimates	
Self concept	→	sc1	.70***
		sc2	.80***
		sc3	.91***
		sc4	.84***
Self efficacy	→	se1	.77***
		se2	.80***
		se3	.82***
		se4	.83***
Ego resilience	→	sr1	.77***
		sr2	.76***
		sr3	.58***
		sr4	.80***
School adjustment	→	Relationship with teachers	.87***
		Relationship with peers	.86***
		Classes	.86***
		School rules	.86***
Life satisfaction	→	Peer satisfaction	.90***
		School satisfaction	.92***
		Family satisfaction	.90***
		Ego satisfaction	.93***
Model fit : $\chi^2 = 751.38$ ($p < .001$), RMSEA = .08(.06~.09), CFI = .94, TLI = .93			

*** $p < .001$.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 직, 간접적인 효과를 통한 관계 양상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2 참조). 첫째,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beta = .53, p < .001$)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beta = .59, p < .001$)과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간접적인 영향($\beta = .12,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beta = .30, p < .001$)과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beta = .44, p < .01$)을 미치며,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 대신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beta = .6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beta = .23, p < .001$)을 미치며,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beta = .39, p < .001$)과 함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beta = .0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 대신, 자아탄력성



〈Figure 2〉 Estimates of standardized parameter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beta = .34, p < .01$)이 확인되었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beta = .33, p < .001$)을 미치며,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beta = .37, p < .001$)과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beta = .17,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영향($\beta = .54, p < .001$)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첫째,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세 변수는 학교적응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아개념

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이상의 자아 관련 변인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특히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학교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

〈Table 3〉 Standardized estimations of structural regression model and model fit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elf concept	→ Self-efficacy	.53***	-
	→ Self-resilience	.71	.59***
	→ School adjustment	.74	.30***
	→ Life satisfaction	.66	-
Self efficacy	→ Self-resilience	.23***	-
	→ School adjustment	.47	.39***
	→ Life satisfaction	.34	-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33	.33***
	→ Life satisfaction	.54	.37***
School adjustment	→ Life satisfaction	.54	.54***

SMC : Self efficacy = .28, Ego resilience = .55, School adjustment = .75, Life satisfaction = .72
 Model fit : $\chi^2 = 751.46$ ($p < .001$), RMSEA = .08(.07~.08), CFI = .94, TLI = .93

** $p < .01$. *** $p < .001$.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중 자기효능감($\beta = .39$)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아탄력성($\beta = .33$), 자아개념($\beta = .3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까지 포함한 전체 영향력의 크기로는 자아개념($\beta = .74$), 자기효능감($\beta = .47$), 자아탄력성($\beta = .33$)의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생활만족도의 경우 학교적응($\beta = .54$)과 자아탄력성($\beta = .37$)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영향력의 경우 자아개념($\beta = .66$), 자아탄력성($\beta = .54$)과 학교적응($\beta = .54$), 자기효능감($\beta =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아 관련 개념 중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며,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하는 자아의 기능적 측면인 자아탄력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력은 물론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학교적응과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개념이 다른 자아 관련 변인에 선행되는 것은 물론,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져 생활만족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모형화하여,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은 모두 직,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사회적 변인인 학교적응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Yi(2011), An, Lee와 Lim(2013)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학교적응은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완전매개하고, 자아탄력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은 그 자체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아 관련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를 경험하고, 학교수업과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즉,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상태를 점검하고,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영역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학교 부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적 지원방안 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은 물론 생활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적응 변인과 함께 자아 관련 변인 가운데서는 자아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Block & Kremen, 1996), 심리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Lim(2010) 및 Kim과 Lim(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환언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능력여부보다 심리내적 역량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통제력과 유연성의 정도가 생활만족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심리내적 개입 자체가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방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융통성이나 유연성, 감정 조절능력 등을 포함한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 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순으로 확인되었다.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해 주의깊게 연구되는 변인들로, 세 변인 모두 직,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들과 일치한다(Jang & Ahn, 2013; Kim et al., 2013; Song & Kim, 2011). 주목할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Bandura, 1997), Jung과 Lee(2009)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능력이 있

다고 생각하며 현실 수용감이 뛰어나 사회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신념인 동시에 능력의 발휘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 및 다양한 문제해결 기술과 성취를 요구하는 학교적응에 보다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안정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심리적 개입전략이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적응 수준의 향상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아개념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볼 때, 학교적응과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적이며(Jang & Ahn, 2013; Kim & Heo, 2004),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Leung & Leung, 1992; Terry & Huebner, 1995).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개념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탄력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생활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아 관련 변인들 간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역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개념은 자신에 관련된 개인적 사고와 느낌의 총체이며,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특히 환경적 강화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Kim, 2004). 또한 자기 존재의 본질이나 위치, 역할 등을 파악하여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oon & Lee, 2009). 이렇게 인식적, 기능적 총체의 특성을 지닌 자아개념

은 보다 세분화된 측면의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아개념의 내용 중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나 신념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발달하며(Lee & Lee, 2009), 자신의 사회적 행동역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응을 위한 기능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Lee & Won, 2013; Pajares & Schunk, 2005). 나아가 자아개념의 영향을 받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을 형성하고 증진시키는데 작용하면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자아탄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emers, Hu, & Garci, 2001; Moon, 1999; Sung & Lee, 2008).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아개념은 이러한 관련변인들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가장 선행되는 개념이며, 자아 관련 변인들의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생후 3년경부터 형성되는 자아개념이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의 관련 변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령기 이후의 학교생활, 생활만족도 등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제인 것이다. 이는 거시적,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아동의 학교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학교적응,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위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생활만족도의 직접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개인은 자기효능감, 자아의 성장과 잠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은 자아개념으로, 개입

의 단기적인 목표에 따라 선별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생활만족도 및 적응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Changa, McBride-Changa, Stewartb, & Aua, 2003) 학령기 초기부터 청소년기 이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자아 관련 변인들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아와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 일부에 국한된다.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다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n, S. J., Lee, H. C., & Lim, J. Y. (2013).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77-91.
- Baek, Y. M. (2004). The effects of circadian rhythm on life satisfaction and optimistic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 809-821.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Company.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ooks, R. (2006). The power of parenting.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 297-314). Berli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Inc.
- Brooks, R., & Goldstein, S. (2001). *Raising resilient children*. NY: Contemporary.
- Cha, K. H. (2001).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 7-26.
- Changa, L., McBride-Changa, C., Stewartb, S., & Aua,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82-189.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a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Cho, Y. M. (1999). A study on the relative utility of practical intelligence in school setting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un, E. P., & Lee, Y. H. (2006). A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of single parents. *Human Life Science*, 9, 185-203.
- Farber, B. A. (2000). Treatment strategies for different types of teachers burnou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5), 675-689.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Hwang, S. T., Kim, J. H., Ahn, I. H., Cho, S. M., Han, T. H., Hong, S. H., & Hong, C. H. (2010). *Korean child personality inventory for self report*. Seoul: Hakjisa.
- Jang, J. Y., & Ahn, J. J. (2013). The effects of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children's self-concept and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2, 1-28.
- Jo, H. I., & Lee, N. Y.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go-resilien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6), 1-20.
- Jung, H., & Lee,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367-2381.
- Kim, A. (2002).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5(1), 157-184.
- Kim, C. K., Han, E. S., & Cho, M. K. (2013).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Studies*, 14(1), 209-229.
- Kim, G. S., Jung, Y. O., & Lee, N. H. (2003).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6(2), 259-279.
- Kim, J. H. (2012).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41-62.
- Kim, S. Y.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go strength scale for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T. Y., & Yi, S. H. (2011). Children'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level in online game, sense of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11(4), 151-162.
- Kim, Y. H. (2004). A comparative analysis on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Theses Collection*, 29, 97-120.
- Kim, Y. M., & Lim, Y. S.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 of Adolescent Welfare*, 15(2), 343-366.
- Kim, I. T., & Heo, N. J. (2004).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learners' nonacademic self-concep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2(1), 75-9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 (2013).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Seoul: Korea Bang Jung Hwan Foundation.
- Kwak, M. K., & Seo, B. J. (2011). The influence which the self-flexibil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the teenagers living in the grandparents-children families have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1(1), 75-112.
- Lee, B. H. (2011).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5), 1779-1791.
- Lee, B. I., & Lee, J. H. (2009).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major(dep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3), 61-81.
- Lee, G. W., & Won, M. A. (2013). The influence of physical self-concept, ego-resilience and school happiness of school sports club activity participation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1), 147-161.
- Lee, J. M., & Lee, Y. H. (200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8(2), 121-137.
- Lee, K. H., & Koh, J. Y. (2003).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self-concept in early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1), 257-279.
- Lee, K. H., & Koh, J. Y. (2006). *Self concept inventory*. Seoul: Hakjisa.
- Lee, M. S., & Lee, G. M. (2009).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school-related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1), 167-193.
- Lee, S. J.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christianity education and causal attribution,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aptation: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W. R., & Lee, S. B. (2008). A study on self-concept,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f gifted elementary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1), 169-189.
- Leung, J. P., & Leung, K. (1992).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6), 653-665.
- Lew, K. H. (2013).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00-2706.
- Lim, J. Y., & Yoon, G. J. (2013).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113-130.
- Lim, K. H. (2010). The effects of stress and ego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9(2), 217-233.
- Maddux, J. E. (1995). Self-efficacy theory: An introduction. In J. E. Maddux (Ed.), *Self-efficacy, adap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3-36). NY: Plenum.
- Marshall, M. (1991). Beverage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 use by young people in chuuk,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eastern caroline islands). *Contemporary Drug Problems*, 18, 331-371.
- Martin, A. J., & Marsh, H. W. (2006). Academic resilience and its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correlates: A construct validity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 43(3), 267-281.
- Martin, A. J., & Marsh, H. W. (2008). Academic buoyance: Towards an understanding of student's everyday academic resili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 53-83.
- Moon, E. S. (2005).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087-1108.
- Moon, H. J.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9), 141-151.
- Moon, S. 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jisa.
- Noh, A. Y., & Kang, Y. S. (2003).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Hakjisa.
- Pajares, F., & Schunk, D. H. (2005).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beliefs: Jointly contributing to the quality of human life. In H. Marsh, R. Craven, & D. McInerney (Eds.), *International advances in self-research* (Vol.2, pp. 95-121).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Park, A. C. (2004).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a factor of fostered ego development on adolescenc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3(2), 73-92.
- Pastore, M., Perkins, D. D., Santinello, M., & Vieno, A.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a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2), 177-190.
- Seo, Y. 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1147-1168.
- Son, B. D. (2005). Multi-variate predictors on the depressed mood and suicidal risk among ordinary adolescents and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 Studies*, 12, 207-228.
- Song, I. S. (1997). The developmental and differentiated changes in dimensionality self-concept across ag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 121-156.
- Song, I. S., & Lee, H. H. (2005). A study on the construct validation of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8(3), 75-96.
- Song, Y. K., & Kim, Y. H. (2011).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1-19.
- Sung, S. J., & Lee, J. S. (2008). Development of causal relationship model amo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Chungbuk Journal of Education*, 29(3), 23-44.
- Terry, T., & Huebner, E. S.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1), 39-52.
- Wigfield, A., Eccles, J., MacIver, D., Reuman, D.,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 Yoo, S. L., Eurm, H. J., & Park, J. G. (2011). The role of ego-resilience in associations between self-efficacy, stress, and self-esteem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setting.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2(4), 169-182.
- Yoon, S. K., & Lee, C.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10), 2917-2922.

2013년 10월 31일 투고, 2014년 1월 19일 수정
2014년 1월 26일 채택